

'PBT 토폴' 준비 어떻게

토폴을 주관하는 미국교육평가원(ETS)이 '토폴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한국에서 5번의 PBT(Paper Based Test)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혀 새 PBT토폴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PBT시험은 국내에서 지난 2000년 9월까지 실시된 이후 폐지된 '옛날 시험'. ETS는 국내 수험생들의 응시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6월 3일 특별시험(원서접수 마감)에 이어 8월부터 4차례 특별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PBT 응시 최대 인원은 회당 8천명씩 4번이다.

문법 익히고 스피커 듣기 연습해야

독해 지문 짧지만 시험시간 분배 신경을

하지만 PBT시험은 2006년 9월까지 시행된 CBT(Computer Based Test)나 현행 iBT(Internet Based Test)와 비교할 때 시험 방식과 문제유형, 수준 등이 달라 수험생의 입장에선 주의할 점이 많다.

먼저 PBT시험은 종이에 인쇄된 문제지와 OMR 답안지를 사용해 치르는 만큼 이에 익숙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

PBT시험은 또 듣기·문법·독해로 구성된 문제 유형과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현행 iBT시험에 있는 말하기(Speaking)가 없고 대신 iBT시험에서 없었던 문법문

제가 40문항이 있다. 전체 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으로, CBT(3시간30분)나 iBT(4시간)에 비해 짧다.

분야별로는 듣기(Listening)시험의 경우 현행 iBT는 컴퓨터 헤드셋을 통해 듣고 시험을 치르지만 PBT는 시험장 스피커를 통해 치러야 한다. 이 때문에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스피커로 듣는 연습을 해야만 한다. 게다가 iBT와 달리 사진·지도·도표 등 시각자료가 제시되지 않는다. 강의 듣기처럼 긴 지문이 없고 비교적 문제도 짧다.

문법(Structure and Written Expression)시

험은 기본적인 영문법을 묻는 시험으로, 모두 40문제가 출제된다. 문법 기본서로 대비를 해야 한다.

독해(Reading)시험은 지문이 짧고 단조롭지만 시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 분배에 신경을 써야 한다.

PBT교재는 이미 절판됐고, 관련 강좌도 거의 없는 만큼 CBT교재와 강좌를 활용해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CBT는 PBT에 비해 듣기와 독해 지문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CBT교재로 공부하면 난이도 있는 문제를 통해 실전에 대비하기 쉽다는 것이다. 일부 어학원들이 내놓은 강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국학 칼럼

자녀에게 우리의 성인(聖人)을 말하자

초등학교 시절, 4대 성인에 대해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점점 의문이 커져 갔고, 더 이상 참지 못해 손을 번쩍 들어 질문했다. "선생님, 4대 성인은 누가 정했나요? 왜 4대 성인은 다 외국인인가요? 우리나라에는 성인이 없나요?" 질문을 받고 당황한 선생님은 한동안 소년의 얼굴을 뚫어머미 바라보셨다.

옛 철학과 역사를 들려주시기를 좋아하셨던 필자의 조부와 부친은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성인이 세운 나라라고 말씀하셨다.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성인의 깨달음이고, 성인의 가르침이라고 하셨다. 그 성인이 바로 우리의 국조인 단군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인의 후손이라고 하셨다. 어린 마음에 성인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의 씨앗을 심어주셨고, 그것은 필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이승현

"한단고기"를 비롯한 '단기고사'나 '규원사화' 등 상고사를 다룬 민족사학자들은 단군은 인명(人名)이 아니라, 왕의 칭호이며, 우리 역사에서 역대 한왕은 18명, 단군은 47명이라고 되어있다. 한왕 대에는 '천부경'이라는 나라의 경전이 있어 백성들을 교화하는 근간으로 삼고 온 백성이 함께 수행에 정진하였으며, 그 전통은 단군 때까지 이어졌다. 우리에게 고조선을 세운 제1대 단군 왕검부터 제47대 고결까지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으로 나라를 이끌었던 2천년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47대 단군 고결가 때에 이르러 수행하는 전통이 사라지고 백성들의 타락이 끝이 없어, 고결가 단군은 더 이상 뜻을 이을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며, 제사장이자 스승의 자리였던 왕위를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이는 민족의 건국이념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뜻을 단아버린 것이며, 이를 단군시대의 폐관이라고 한다. 이후 우리 민족은 제 정신을 잃고, 남의 정신에 최면이 걸린 채 2천

년을 방황하며 살아 왔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리라"는 단군의 뜻은 단순한 통치이념이나 지배이데올로기가 아니었다. 우리 선조들이 공동체와 국가, 그리고 개인의 삶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했던 염원과 이상이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대답이었다. 우리 선조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삶의 가치와 존재 이유는 바로 '홍익'이었던 것이다.

단군이 민족의 뿌리인 진정한 이유는 5천년 민족사의 첫 머리에 '홍익'이라는 불을 밝힌 분이기 때문이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중심가치와 철학을 세운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민족의 가치관과 정체성의 핵을 알 수 없고, 중심과 가치기준이 없어져 민족이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없다.

한 인간의 삶은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행복하듯이 민족의 삶도 마찬가지다. 우리 민족이 행복하려면,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중심에 전통문화의 뿌리가 튼튼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 민족의 정신적인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정체성을 위한 민족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족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필자의 조부와 부친께서 그러하셨듯이, 부모님은 단군을 바르게 알고, 민족을 바르게 알아, 자녀들의 가슴에 성인의 후손이라는 씨앗을 심어주어야 한다. 그 씨앗이 자라 홍익의 열매, 평화의 열매를 맺고 인류의 평화를 위한 훌륭한 동량이 될 것이다.

국대학교총장대학원대학교 총장, 국학원 설립자

광주 전산고 '공부 바람'

자율 학습·보충 수업 강화를 졸업생 전원 진학·취업 실업계고 지원사업 선정

광주 전산고등학교(교장 최충안)에 심상치 않은 공부 바람이 불고 있다.

전문계(옛 실업계) 학교로는 이례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야간 패키지형 보충수업을 통해 기초 학력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방과 후 국어·영어·수학 중 부족한 과목을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보충수업과 이어서 밤 9시30분까지 실시되는 야간 자율학습에 참가하는 학생은 현재 78명. 이 같은 향학열 때문인지 졸업생 196명 중 ▲4년제 대학 96명 ▲2년제 대학 80명 ▲대기업 취업 11명 ▲중소기업 취업 9명 등 전원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했다.

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산고는 3년 동안 연간 3천380만원씩 모두 1억1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광주전산고의 취업률제고 프로그램 '찾아라! 블루오션 프로젝트'는 크게 직업진로지도와 취업활동지원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올바른 직업진로를 지도하기 위해 학교 측은 진로 희망조사와 작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교육 및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또 취업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직업정보검색대화·창업동아리 콘서트 공모전·자기소개서 작성 콘서트 등을 실시해 동기부여를 하게 된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취업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창업동아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최충안 교장은 "전문계 고등학교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좋지 않은 이미지를 모두 없애기 위해 실용에 입각한 교육을 하고 있다"며 "공부나 취업 등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



"오디오로 책 들어요"

디지털오디오 콘텐츠 포털사이트인 오디오닷컴(www.audien.com)이 광주·전남지역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2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갤러리콘 앞 광장에서 펼친 '귀로 열리는 세상, 귀로 듣는 지식' 행사에서 회사 관계자들이 책 내용을 소리로 들려주는 '오디오 북'을 선보이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광주 지산초교 북분교장 생태 체험교실 운영

광주지산초교 북분교장이 어린이 생태문화 체험학습 교실로 활용된다.



광주지산초교교육청(교육장 이종현)은 25일 광주지역환경기술센터와 협약을 체결(사진)하고 북분교장과 인근 지역 환경을 활용해 학생·교사·학부모·환경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 생태문화 체험학습 교실 '아름다운 작은 학교'를 운영키로 했다.

'아름다운 작은 학교'는 동부교육청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월 2, 4주 토요일과 여름방학 중에 운영되며, 자연 속에서 보고 만지고 즐기고 배우는 지역 연계형

현장체험 학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야생화 관찰 및 텃밭 가꾸기, 생태숲길 걷기, 전통 짚 공예, 담양습지 생태 탐방 등 마을 생태문화 체험학습과 별자리 찾기, 천연 염색, 천연 비누 만들기 등 캠프 활동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음을 배우는 장소로 활용될 전망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배터리 원가절감의 획기적인 기회

품질은 100% 가격은 30%

◆배터리닥터,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놀라울까요?

배터리 성능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충전 불량이나 수명감소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연판에 생긴 황산염 때문입니다. 배터리 닥터는 프로뱃(Probat)과 프로차지(Procharge)라는 최첨단 과학으로 황산염을 제거하고 성능을 억제함으로써 폐배터리를 새것과 동일한 성능으로 회복시켜드립니다.

◆적용범위

자동차용 및 물류 배송센터

◆배터리 닥터, 그럼 누구에게 가장 필요할까요?

버스, 택시, 트럭, 골프카트, 지게차, 견인차, 청소차, 운반차, 공항 및 선박, 물류센터, 자동창고, 백화점등 전동장비, 운송장비를 이용하여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1년에 얼마나 많은 배터리 교체비용이 드는지 아실 것입니다. 이런불황기에 배터리 값만 아껴도 회사 살림이 확 됩니다. 지금 배터리닥터를 만나 보십시오.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여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껴 드리겠습니다.

◆주요 실적

현대자동차, 삼성전자(탕정공장), 한국 BASF, 호남석유화학 전동지게차 현장투입의 108개 업체 현장투입 가동중

bd (주)배터리닥터 BATTERY DOCTOR www.batterydoctor.com

충남·도립 전남·전북

상담전화 02)3664-1066

단기간에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고중 공식지정 캠프/연수

영어캠프 / 연수

영어캠프

- 참가대상: 초·중생 개인 및 그룹
- 캠프기간: 2007. 7. 20~2007. 8. 31(6주코스)
- 접수기간: 2007년 5월 31일 까지(선착순 조기마감)
- 캠프장소: URC(University of Regina Carmel)캘러민

한국 위주 영어캠프는 최고의 목표를 첫째는 안전, 둘째가 학업능력향상, 셋째가 문화체험이라는 순서를 정하고, 교육환경에서, 영어능력향상을 배가시키고 동시에, 즐거운 속에서 영어와 친숙해지고 영어적 사고를 배양하며, 캠프기간 후에도 영어공부에 대한 학습의욕을 고취시켜줄 훌륭한 캠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는 캠프가 아닌 공부하는 캠프"

한국위주영어캠프는 학부모들의 바람에 충실하고, 영어캠프의 주목적이 실제 영어 실력향상에 있다는 사실을 기인하여 일시적인 효과만을 주는 관광형의 문화체험형 답답을 철저히 배제하고 4시간의 정규 수업, 2시간의 발음 및 문법 수업, 2시간의 영작 수업, 2시간의 단어 암기 등 총 11시간의 체계적인 수업을 진행하며, 모든 하루의 과정을 실용적 영어 실력향상에 초점을 맞춘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업 진행

- 한국학생들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닌 필리핀 정규 수업과정(초등학교~고등학교)에 레벨별로 배치되어 수업을 받게 됩니다. 수업은 전부 영어로 진행되며, 수업과목은 영어, 수학, 과학 3과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학생 3명당 1명의 원어민 담임 선생님이 지정 됩니다.
- 정규수업 이후 취침시간전까지의 시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주로 정규 수업시간의 복습과 예습, 영락 및 단어암기과 개별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여 주시고 취약한 부분을 보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홈에이저를 통한 학생 생활상 보고system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동안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등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본 캠프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시로 자녀분들의 생활상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영어연수

- 연수대상: 중학교 이상 성인까지
- 본인이 스스로 공부에 대한 열의가 있으며, 자기관리능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함
- 연수기간: 4주, 6주, 8주 과정(1월 단위로 연장가능)이 있으며 연수기간은 연중 자유로이 선택
- 연수장소: 마닐라 오티가스

단기간에 집약적인 영어 학습을 통하여 실질적인 영어능력의 향상을 원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시형 연수프로그램입니다. 이는 최고의 목표를 학업능력향상으로 정하고, 문화체험 등과 같은 부가적인 요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수준별 수업을 통해 학생의 level에 맞는 철저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함으로써 단기간 내에 학생의 영어 능력을 신장 시켜 주는 syste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련과정은 Grammar, Reading, 주제를 토대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 선생님들이 매일 수업을 진행합니다. TOEFL, TOEIC, IELTS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으며, Reading, Speaking, Writing 분야를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장에서의 체력도 실시하여 스스로 영어가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본인이 체감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영어 공부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 원어민과 맞춤형 수업진행으로 효율을 극대화
- 원어민 선생님의 자질 우수
- 프로그램 우수
- 선생님이 방문하여 수업을 하므로 이동시간의 절약 및 안전 보장

참가도 특별 이벤트

5월 20일 이전 등록자 전화영어 1개월 무료수강

www.wawcamp.com

1588-8010

www.wawcamp.com

광주일보

www.wawcamp.com